

<개막식 개회사>

21세기 새로운 세계불교사를 한중일 3국이 함께 만들어 가기를...

오늘 한중일 3국의 불교대표단은 '불국정토의 실현'과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의 제16차 대회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양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해남도에서 이웃 도반이신 중국불교대표단과 일본불교대표단 모든 분들께 한국불교계를 대표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준비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중국 종교성 왕작안 국장님, 그리고 해남성 성장님과 여러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16차 대회의 주제는 '자연재해 후 심리치료'로 3국의 불교도가 불교적 관점에서 방법을 모색하고 준비하여 진지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문명의 발달은 21세기 인류에게 많은 편리를 주었지만 동시에 시련을 안겨 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지구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환경파괴, 그리고 극심한 도시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자연재해의 급증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계는 한걸음 나가 21세기의 지구촌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인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또한 우리에게 닥친 자연재해로 부터 어떻게 치유하고 예방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3국 불교도는 그 답을 찾고자 불법의 심오한 진리의 세계로 함께 할 것이며, 그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행하신 무한한 자비심을 따라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이곳이 모든 중생들과 상호연관된 '인드라'의 관계임을 성찰하여 모두가 바라는 불국토의 지구촌을 위해 성심으로 정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불교계는 사회와 인류에게 '世界一花'의 공동 운명체로서의 '同業衆生' 의식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 세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불교의 심리 치유 방안을 제시하는 금번 제16차 대회의 의의는 크다 하겠으며, 삼국 불교계의 화합을 넘어 인류모두가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불교적 대안을 기대하겠습니다.

불교계가 지닌 고유의 전통인 '결집'의 의미를 새겨 참가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내가 가진 역량을 주변에 회향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제1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의 성공적인 성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2013)년 11월 27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